

## 최무열 교수의 하나님 마음 담은 레위기

<제10장 : 거룩한 신앙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: 23, 24장>

### 1. 오늘의 포인트

- 1)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.
- 2)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빛, 세상의 떡, 세상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
- 3) 자녀의 운명은 결국은 부모가 결정한다.

### 2. 본문

- 1)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(23장)
- 2) 세상의 빛, 세상의 떡, 세상의 향기로 살아야 할 교회와 성도
- 3) 자녀의 운명은 결국은 부모가 결정한다.

#### 1)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(23장)

##### (1)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

- 안식일
- 유월절과 무교절
-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
-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
- 일곱째 달 첫 달은 쉬는 날
- 속죄일
- 초막절

##### (2) 각종 절기 제정의 목적 :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(신 8:11-16)

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,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.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 주하게 되며,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, 네 은금이 증식되며,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. (신 8:11-16)

##### (3) 이 절기들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?

- 안식일 : 하나님이 안식을 주심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웃에게 안식을 줄 것
- 유월절 :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을 해방할 것
- 초실절 :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할 것
- 오순절 :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함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공급할 것
- 나팔절 :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함 같이 우리도 이웃의 자유를 선포함
- 속죄일 :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할 것
- 초막절 :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을 보호할 것

2) 주의 거룩한 성소에 항상 진설해야 할 세 가지

- 순결한 기름과 등잔대를 항상 진설할 것
- 순결하고 정결한 가루로 만든 떡을 항상 진설할 것
- 순결하고 정결한 유향을 항상 진설할 것

3)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의미

- 순결한 기름 : 자신을 불태워 빛을 밝힘 : 빛 되신 그리스도
- 순결한 떡 :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림 : 세상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
- 순결하고 정결한 유향 : 자신을 희생하여 향기가 됨 : 세상의 향기되신 그리스도

4) 세상의 빛, 세상의 떡, 세상의 향기로 존재해야 할 교회와 성도

성소에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	그리스도	교회와 성도의 삶
정결한 기름과 불	세상의 정결한 빛	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정결한 빛
정결한 가루로 만든 떡	세상의 정결한 떡	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정결한 떡
정결한 유향	세상의 정결한 향기	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정결한 향기

5) 자녀의 운명은 결국 부모가 결정한다.

(1) '그의 아버지가 애급사람'임을 밝히는 이유

-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.
-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
- 이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
- 부모의 국적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
-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
- 이로 말미암아 이런 이상 성격이 되었을 가능성

(2)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

-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다
-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말한다
- 이 여인은 외국인 특히 애급 사람 남편을 얻었다
- 이런 취지에서 이 여자는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다
- 이런 여인에게서 방탕한 아들이 난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

(3) 결국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결정짓는 것이다.

### 3. 오늘의 적용

- 1)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않기 위함임을 알고 절기를 대할 때 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.
- 2)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, 떡, 향기로 사셨듯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의 빛, 떡, 향기의 삶을 살아가자.
- 3) 우리가 죽을 각오로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자녀의 신앙교육임을 기억하자.

